안식 없는 허우적거림

(이사야 57:1~21)

1.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2.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3.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안식 없는 허우적거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안식 없는 허우적거림'
이근대 시인의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앞부분만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바람도 담아두면 나를
흔들 때가 있고
햇살도 담아두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울 때가 있다

아무리 영롱한 이슬도
마음에 담으면 눈물이 되고
아무리 이쁜 사랑도

지나가고 나면 상처가 되니
그냥 흘러가게 놔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느낌의 또 한편의 시를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마음 그릇”이라는 동시입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마음.

꽃을 담는 게 좋겠어요,
쓰레기를 담는 게 좋겠어요?
나는 더러운 쓰레기통보다는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병이 될래요.
나쁜 생각보단 좋은 생각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래요.

축약하자면 이근대 시인의 시는 마음에 담지 말라는 내용이고, 안도현 시인의 시는 마음에 담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대 시인의 경우에는 바람, 햇살, 영롱한 이슬, 이쁜 사랑조차도 마음에 담으면 결국 아픔과 상처가 될 터이니 마음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니 좋은 것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안도현 시인의 시에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쓰레기를 담는다고 해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근대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영롱한 이슬을 담아도 눈물이 되고 이쁜 사랑을 담아도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 대상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무엇을 담아도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를 담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면 마음에 담는 순간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근대 시인의 시에서도 놓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담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담도록 만들어진 마음의 구조에 빗대어 본다면 마음에 담지 말라는 말만큼 답답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합당한 것이 담기느냐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근대 시인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추함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도록 만들어진 마음에 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안도현 시인은 마음에 담되 좋은 것들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마음에 담기면 쓰레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시인이 절반씩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을 알기만 해도 인생은 80%는 성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나왔던 내용을 되짚어 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신체에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이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남 왕국 유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악함의 얼굴 앞에서 불리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 징계나 환란을 내리실 때에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의인의 죽음에 대해 말한 이유는 당시의 선민들이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마음이 떠나든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마음을 떠나보낼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도무지 안식에 대해 생각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들이 추구했던 안식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20~21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창조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안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다가 크게 물결치면 바닥에 쌓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올라서 섞입니다. 홍수나 태풍 때에 육지의 부산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혼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에 안식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안식과 평강으로 들어가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고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선민들의 혼탁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잡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바다와 같이 혼탁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허우적대며 살아갈 때에 우상숭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창세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억제시켜 두셨습니다.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라 홍해 물이 갈라지듯이 밀어내신 것입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나면 깊음뿐입니다. 그 위에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삼라만상이 깊음 위에 떠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의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 같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창조되었기에 바다의 깊음 속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딱딱한 땅에 박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구나 우주까지도 깊은 바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들에는 모두 바람이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짐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바람이신 당신의 뜻을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바람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부정할 때에 바람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를 걷는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서도 '왜 그렇게 기분이 가라앉았어?'라는 말을 합니다. 떠오르기 위해서는 바람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인격적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삼라만상도 바람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백합화는 그릇입니다. 그 꽃에 대한 모양을 연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 있지만 생애 동안 자발적으로 바람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으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고 걱정 근심이 생겨납니다. 뜨면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아담은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숭배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만을 모셔 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주어질 때에 삶에도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의 미묘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세상을 담습니다. 가족을 담고 사업을 담고 이 세상 것을 담습니다. 이근대 시인의 말대로 그것이 영롱한 이슬일지라도 세상 것을 마음에 담으면 눈물이 됩니다.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예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았더니 자꾸 우는 일이 생겨납니다. 너무나 이쁜 사랑을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마음에 담자 자꾸 상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음을 느낍니다. 마음은 세상이 담길수록 무거워지고 가라앉게 되어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직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이 담길 때에만 마음은 가벼워져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흔히 마음이 들뜬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면 마음이 들뜹니다. 하여간 마음이 떠야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기쁨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쁨추구는 인간의 존재방식입니다. 기쁨을 향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담고 나니 가라앉으며 허우적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통나무를 잘 깎아서 불상을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불상 앞에서 소원을 이루어달라며 절을 합니다. 무척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쁨을 추구하려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상과 미신에 의지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특히 므낫세 왕 때에는 우상숭배가 엄청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기본이었고 성전 뜰에 일월성신의 제단을 만들었고 성전 안에서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공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남 왕국 유다의 아름다운 숲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의식 순서 안에 남녀가 관계를 하는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단순히 종교성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세상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담는 것은 대부분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비전을 담습니다. 자녀의 성공한 모습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는 이유는 그러한 모습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자녀 때문에 괴롭고 배우자 때문에 괴롭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담지 않은 것으로 인

해 괴롭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는 것이 악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마음에 담고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우상과 미신이 형태를 바꾸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경전이 되었고 각 계통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에덴은 무법칙천지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계셨기에 법칙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세상을 담게 된 인간은 법칙을 만들어서 세상을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규정해 놓은 법칙과 삶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경제 석학들이 연구하는데 세계는 항상 경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평생 연구를 하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에 관한 지침서들이 넘쳐나는데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조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책이 나왔다면 열풍이 붑니다. 미신을 붙잡는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을 제시하는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정작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원(paradise)이라는 단어가 정작 낙원과는 동떨어진 사막에서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담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근대 시인이 마음에 담지 말자고 했지만 내 판단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릇이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다보면 마음에 자녀가 담깁니다. 배우자를 대하다보면 배우자가 담기고, 돈을 대하다보면 돈이 담깁니다. 법정 스님도 난초를 키우다보니 난초가 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담지 말자는 것은 바람직한 청유형의 시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안도현 시인의 말대로 담기는 담아야 하는데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담으면 쓰레기가 됩니다.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앉지 않으려고 허우적대는 동안에는 세상이 만들어 낸 미신이라도 붙잡으려 하게 되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담긴 것들을 확장하고 부흥시키고 강화하고 번영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지만 그것은 허우적거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마음에 세상을 담은 이상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도 가라앉는 중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 헤밍웨이나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는 잘 되리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이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죽은 자'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뜨는 것은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식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건강이 담긴 마음에 대해 죽었을 뿐인데 마음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9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뜰 때에 바다 위를 걷는 삶이 시작되면서 기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지 않은 세상일들에 바람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그 일들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사라집니다. 공허 대신에 열매가 맺히고 흑암 대신 광명이 찾아옵니다.
지금 화가 나고 걱정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담긴 세상 것들을 기정사실화해서 부흥시키고 번영시키고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앞장의 말씀에서 지도자들에 대해 엄청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러한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조차도 미신화 시켜버리고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은 대상들이 잘되기 위해서 봉사충성하고 헌금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신입니다. 면죄부를 사야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미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안식 없는 허우적거림을 중단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의 안식과 삶에도 하나님 뜻의 안식이 임할 수 있는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이 간단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과 시간과 뜻과 마음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식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걷게 하시고, 삶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